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07호 [무게 제 24985호] 주 104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맞는 동
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
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과 중국인민지
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
두돛을 맞으며 오늘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혁
명전쟁에서 백승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
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
이며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백두산대국
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미일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
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전진투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초기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
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쇠를 모르
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
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전화의 나날 영웅전사들속에서
발휘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
이 모든 인민군장병들의 신념의
기둥으로, 최고사령관의 명명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군공
이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기강으
로 억척같이 세워져야 하며 한치
의 땅도 목숨바쳐 지키는 열렬한
조국애와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필적의 투지가 근
위부대운동이 전개되는 혼란장과
싸움터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져
야 합니다.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
생산을 보장한 그 정신, 폭격속
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 전진
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 기
백이 나날될 때 경제강국건설의
진구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
적과 혁신이 연이어 창조되고 온
나라에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게 될것
입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 세대
들, 청년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청년문제이자 혁명의 계승문제이며 혁명위업계승
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적형통, 신념의 피의
계승입니다.
청년들은 선열들이 피로써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을
뼈에 새겨안고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의
부름앞에 한물 서슴없이 내대야 하며 불타는 애국심과
아름다운 리상,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선군혁명
의 제1선참호와 대진실전투쟁들에 용약 달려나가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선군청년전위 의용병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
선배로 존대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품모이며
전통입니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
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여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인 전
쟁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로당위원장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폐전의
수치와 수심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고 최후의 발악
을 다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력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
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들어보내줄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미제
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 싸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
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어사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다
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력사
의 필연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물려주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들의 건강장수와 가정의 행복을 축원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조국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진승신화를 창조한 항일혁명투사
동지들과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
취한 동지들과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그리고
전사공로자동지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더불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
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전쟁을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7.27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
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하려고 집어들던 미제
국주의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긍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이 세
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것은 인류전쟁사에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
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사
변이었습니다.
침략과 약탈로 비태해지고 오만해진 미제를 물리
치는 조국해방전쟁은 사실상 맨주먹으로 횡포한 날
강도무리와 맞서는것과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으며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전쟁
에서 조선인민이 이겼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치는 가말한 판가리싸움에서 우
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자기의 조
국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우리 나라는 새로운 세계대
전을 막아낸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널리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미제의 성조기에
불을 달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
리던 승리의 그날로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
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미투쟁
의 최전선으로 되오는데 이 땅위에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떨어지 않는 때는 없었고 세계의
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끄떡없이 자주적근위병
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판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
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
하게 축 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
입니다.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불세출의 전설적명장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
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세련한 증견자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청춘도 생애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
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세 세대들의 가슴속에는 진승세대의
모습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유
명무명의 영웅들의 군상으로 소중히 새겨져있습니다.
육천한치의 땅을 지켜 피뎠는 가슴으로 화점을 막고
항일도 적과 땅을 맞받아나간 영웅한 우리 할아
버니, 아버지세대들이 아니었다면 존엄높고 강대한 사
회주의조국, 로동당의 손길아래 복락을 누리갈 후손만
대의 삶의 보금자리가 없었을것입니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
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용
사들의 전설적인 위훈담들과 피어린 자욱들은 절대로
잊혀질수도 지워질수도 없으며 강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
을 실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
한것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였으며 세상을 경탄시킨 무비의 용감성의
원천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
는 증오, 억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두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가 방대한 전쟁장
비와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공세를
거들렀지만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총만질 우
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었으며 침략
의 무리들은 전쟁기간 심대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
적참패를 면할수 없었습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세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된 로병들을 당과 혁명대오의 핵심골간
으로 내세우고 아껴주시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속에서 전쟁참가자들과 전
사공로자들은 전후에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조국
의 부강발전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대교조의 불길높이 조선사람의 본래를 다시한번 과
시한 천리마시대의 영웅사사시들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넌대기들에는
먼저 간 전우들의 뉘까지 합쳐 허리띠를 조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진승세대의 고귀한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뜻없이 이
겨내고 당을 따라 선군혁명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신
념의 기둥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새겨준 전쟁로병들
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가적
품모의 귀감입니다.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상정신적
제부를 넘겨주는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모시고있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으로, 힘으로 됩니다.
항일의 로투사동지들처럼 당과 수령을 만드는 길에
물불을 물렸으며 한생을 걸신 혁명군인의 자세로 총
진군대오를 고무해주고있는 동지들과 같은 훌륭한분들
이 있기에 우리 당은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비속을 헤치던 전화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강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쳐
온 전쟁로병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혁혁한 애국공적
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사에 불멸의 금문자로
찬연히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진승
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혁명
선열들과 로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은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전략적방침입니다.
1950년대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이며 천만군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선군조선의 넋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승절을 크게 기념하고있는것도
혁명선배들인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영웅적
삶을 값높이 빛내어주며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
을 튼튼히 무장시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장엄
한 무령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반제계급투쟁
의 훌륭한 교과서,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
기 위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서